

소아에서 무증상성 일차성 혈뇨의 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조민현 · 이지혜 · 고철우 · 구자훈 ·곽정식*

목적 : 최근 학생집단뇨검사 시행 이후 나타난 소아의 무증상성 일차성 혈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신생검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대상 환아는 19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무증상성 반복성 육안적 혈뇨 또는 지속성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입원한 146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122례에서는 신생검을 시행하였다. 홍반성 낭창, 알레르기성 자반증 등의 전신질환 및 요로감염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고혈압,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 대상 환아의 평균연령은 8.0 ± 3.2 세였으며 전체의 51.4%인 75례가 6세에서 10세 사이에 분포하였다. 총 146명 중 남아가 80예 (54.8%), 여아가 66예 (45.2%)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무증상성 혈뇨를 처음 발견한 과정을 보면 전체의 52%인 76례가 학생집단뇨검사를 통한 경우였으며, 육안적 혈뇨를 통해 발견한 경우가 41예, 우연한 기회로 발견한 경우가 29예였다. 원인 질환의 분포를 보면 TGBM이 73례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IgA 신병증이 20예 (14%), Alport 증후군이 6예 (4%), MGN이 4예 (3%), MPGN이 2예 (1%)를 차지하였다. 기타로 IgA 신병증과 TGBM이 동반되어 나타난 경우가 3예 (2%)가 있었으며 정상조직소견을 보인 경우는 14예 (10%)였고 나머지 24예 (16%)는 특발성 고칼슘뇨증으로 진단되었다. 진단 당시 육안적 혈뇨를 보인 경우는 특발성 고칼슘뇨증이 전체 24예 중 18예로 가장 많았으며 TGBM, 정상조직소견을 보인 경우는 현미경적 혈뇨만을 보인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진단 당시 무증상성 혈뇨와 함께 단백뇨는 22예 (15%)에서 나타났으며, 진단 당시 신부전을 보인 경우는 한례도 없었다. IgA 신병증의 경우 전체 20예 중에서 10례가 Haas의 subclassification에 따라 class I으로 진단되었으며 7례가 class III, 3례가 class IV로 진단되었고 class II와 class V는 한례도 없었다. 추적 관찰기간 중 혈뇨소실의 빈도는 TGBM의 경우 3-4년 이내에 10%였고, IgA 신병증의 경우 3-4년 이내에 20%였으며, 정상조직소견을 보인 경우 1-2년 이내에 27%였다. 전체적으로는 1-2년 이내에 17% 정도가 혈뇨의 소실을 보였으며, 추적 관찰기간 중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한례도 없었다.

결론 : 무증상성 일차성 혈뇨 환아의 원인질환 중 TGBM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발성 고칼슘뇨증이, IgA 신병증이 3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무증상성 혈뇨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 진행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후인자가 없다면 신생검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